

# 대중문화 시대에 책의 길을 찾아서

글\_박영률 (커뮤니케이션북스 대표)

대중문화라는 말을 들어본 것이 30년이 넘는 듯하다. 한국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이 말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이 눈에 띄곤 하였다. 최인호의 소설, 이장호의 영화, 신중현의 음악 그리고 그즈음 등장했던 생맥주를 마시거나 교외선 열차에서 기타를 치며 고성방가 하는 것도 대개 이 말, 곧 대중문화 아니면 청년문화라는 말로 혼방되곤 했다.

지금은 이상할 것이 하나 없지만 대중문화라는 것이 말이 되고 또 되씹어 볼 만한 단어가 되었던 것은 바로, 그 전에는 대중과 문화가 서로 손잡지 못할 만큼 멀찍이 서 있었다는 역사의 반증이 아닐 수 없다. 멀리 갈 것도 없다. 100년 전만 해도 이 땅에 대중문화라는 말은 없었다. 대중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은 그 잘났다는 미국이나 프랑스라고 해서 다를 것은 없다. 흑인은 백인과는 다른 동물이므로 같은 자리에 앉을 수도 없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나 조국이 다르다고 식민지 백성들을 개나 돼지처럼 대접하던 사람들에게 대중의 권리라는 것이 어느 구석에서 숨쉴 수 있었겠는가? 하여 대중문화라는 말을 실체를 반영하는 단어로 사용하자면 적어도 인종차별이 사라지고, 식민지가 해방되고 군인이나 돈에 의한 정치 특권이 사라진 이후의 시대, 한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나 되어야 이 말, 대중문화를 사회 실체로 논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전에 대중문화에 대한 자각과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중이 없는 사회에서 대중문화를 논하는 것은 지식식민지의 마름 인텔리들의 자가당착일 뿐, 현존하는 사회의 발전과 행복을 논하는 데에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에 불과할 따름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대중문화론은 민중문화론의 뒤꽂무니로 숨어버렸고 문화의 담론은 정치의 담론으로 대치되었던 것이다. 한국의 대중문화와 청년문화가 신문의 문화면이나 몇 번 장식하고 잡지의 신춘특집에서나 지면을 소비하다 온다간다 변명도 없이

사라져버린 이유도 이와 다름없다. 대중이 없는 대중문화는 그러므로, 사기였던 것이다.

이런 연유로 2007년에 한국의 대중문화와 책의 길을 논하는 것은 뜻 깊은 일이다. 이 나라에 대중이 있다는 뜻이다. 흑자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대중을 말하는가, 분중이나 개중을 이야기한다면 또 몰라도 라며 혀를 차기도 할 것이다. 틀린 지적은 아니다. 그러나 분중이든 개중이든 다 대중에서 쪼개져 등장하는 현상이니 대중(大衆)과 분중(分衆)과 개중(個衆)을 한 모퉁이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기쁨은 이제 한국 사회가 대중과 분중과 개중, 곧 민주주의의 주권자, 경제생활의 주체자를 실물 대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한국 사회에서 대중문화의 창궐과 책의 쇠미를 논하자는데 민주주의는 뭐고 경제생활은 또 뭐냐고 반문하는 분이 계신다면 대답을 피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왜냐하면 대중문화란 대중이 권력과 돈이 있어야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다섯 식구 먹고 살 길이 막막하여 독일이나 베트남이나 중동이나 가릴 것 없이 돈 벌러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하거나 대통령, 국회의원이야 이놈이 되건 저놈이 되건 내겐 고무신 한 켤레와 막걸리 한 사발이 더 값진 사회에 대중문화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반문이 고개를 들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 1970년대나 1980년대에는 그렇다손 치자, 이제는 대중이 권력도 있고 돈도 있지 않느냐, 그러데 왜 본론은 제쳐두고 아까운 지면을 과거사 한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냐? 여기가 중요한 대목이다. 우리가 대중문화와 책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과거사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 까닭은 이렇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등장했던 대중문화에 대한 거의 모든 이야기가 수입 짝퉁이었다면(이었다면이 아니라 이었다 라

고 써야할지 모르겠다.) 지금부터 이야기될 대중문화에 대한 이야기는 신토불이의 진품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정치, 경제의 두 면에서 대중사회가 되었다. 한국은 원조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중의 세금에 의해 경제가 운영되고 특정 집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중의 선택에 의해 정치가 운영된다. 대중이 권력을 갖고 돈을 가지면 대중의 사는 방법에 틀이 잡힌다. 이것을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이런 것을 우리의 당면 현실로 논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무슨 때가 되었다는 것인가? 대중문화를 고급문화와 대립시켜 비하한다든지, 예술을 순수 예술과 참여 예술로 나누어 자신의 입지를 변명한다든지 하는 눈속임은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책의 세계에 진짜 대중문화의 물결이 밀어닥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책의 세계에서 말이 통한다. 독자가 읽을 수 없는 책이 사라진다. 독자가 읽을 수 없는 말을 하는 필자가 사라진다. 그동안 읽을 수 없는 책이 독자를 괴롭힌 이유가 무엇인가? 프랑스의 사회학, 독일의 철학, 미국의 경제학, 영국의 물리학은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 그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일까? 아니다. 필자들이 어렵게 말했기 때문이다. 왜 그랬을까? 상상에 맡기겠다.

책과 책 사이의 장벽이 무너진다. 인문교양서를 만드는 출판사와 오락만화를 만드는 출판사가 서로를 다른 출판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없어진다. 학습교재를 만드는 출판사와 문학서적을 파는 출판사가 서로를 남인 듯 바라보는 태도가 사라진다. 소설 같은 학습 참고서나 등장하고 만화 같은 철학책이 등장한다.

책과 다른 문화 상품 사이의 장벽이 무너진다.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다른 문화 장르를 업신여기는 행태가 사라진다. 책이 드라마가 되고 드라마가 책이 된다. 영화가 게임이 되듯이 책이 노래가 된다. 노래에서 소설이 나오고 소설에서

춤이 나온다. 춤에서 책이 나오고 책에서 여행이 나온다.

미디어의 장벽이 무너진다. 종이책과 전자책을 나누어 보려는 부질없는 경쟁이 사라진다. 핸드폰으로 책을 듣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신문 같은 책, 책 같은 신문이 나타난다. 인터넷이 책을 만들고 책은 인터넷에 의해 재생된다.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벽이 무너진다. 인상비평이 사라지고 독자가 비평가가 된다. 초등학교의 책은 초등학교가 필자가 되고 할머니들의 책은 할머니가 필자가 된다. 책을 집필할 수 있는 전문가의 수가 매년 곱절씩 늘어나서 독자의 숫자만큼이나 필자의 수가 많아지기 시작한다.

정말인가? 이런 모든 일이 왜, 어떻게 벌어지게 된단 말인가? 대중(분중 또는 개중)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대중의 시대에 문화의 권력은 대중에게 있다. 민주주의 시대에 정치의 권력이 대중에게 있고 경제의 권력이 소비자에게 있듯이 대중의 시대에 책과 대중문화의 생사를 결정하는 권력은 대중에게 있다. 대중은 절실한 것을 원한다. 한국의 대중이 책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대에 대중의 삶을 받쳐주고 밝혀주는 경험의 연결이다. 며칠 전에 빌 게이츠가 라스베이거스에서 주장했듯이 지금 전 지구인의 소망은 '이어진 경험'(connected experiences)이다.

인간 각자의 고유한 경험이 서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벽이 쳐진 전문 영역을 끝까지 지키려는 자는 누구인가? 한 사람의 경험이 다른 사람의 경험이 될 수 없도록,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인간의 이어짐을 가로막는 자는 누구인가? 책은 종이로만 만들어야 한다든지, 대중문화와 고급문화는 달라야한다든지, 양반과 상놈은 엄연히 살아있든지 하는 뜻을 은근히 내비치는 그들은 누구인가? 대중문화의 시대에 책의 길을 찾는 출발점은 그것을 발본색원하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책의 길에 돌이 많다. 돌을 치워야 길이 열린다. 